



〈석가모니의 5번째 꿈〉

우리는 지난 글에서 불교 초기경전인 '커다란 꿈의 경(Mahāsupina sutta, A5.196)'에 기록되어 있는 석가모니(釋迦牟尼)의 꿈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대지에 누워있는 싯다르타의 배꼽에서 띠리아 풀이 자라 올라가는 이전 꿈들이 싯다르타의 영적인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을 묘사한 꿈들이었다면, 오늘 보게 될 꿈들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이후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경(經) 3

“여래(如來)께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꿈이다.

‘검은 머리를 가진 흰 벌레가 두 발에서 위로 기어올라 양 무릎을 덮는 것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여래께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꾸었던 세 번째 큰 꿈이다.”

해석

세 번째 꿈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검은색 머리를 하고 있는 흰 벌레들이 석가모니의 몸을 덮고 있습니다.

석가모니(釋迦牟尼)는 이미 이전 꿈에서 띠리아 풀 즉, 하나님의 신, 부처님으로 거듭난 존재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러한 석가모니의 몸에 수많은 벌레들이 물려듭니다. 이 벌레들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 일까요.

우선 벌레는 한자로 벌레 총(虫)이나 파자(敝字)로 보면 네 생물(口)의 왕(一)이 된 자(丿) 즉, 하나님의 신이나 영적 의인으로 풀립니다. 이는 이전 글에도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벌레는 언뜻 징그럽고 하찮은 생명체로 취급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성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벌레가 품고 있는 영적 상징성은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벌레는 기본적으로 애벌레로 그 생을 시작합니다. 흉한 모습으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다가 고치를 틀고 그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긴 잠을 자게 됩니다. 이후 고치를 깨고 나오는 일련의 변태(變態, metamorphosis) 과정을 통해 이전의 흉측하기만 했던 애벌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한 성체(成體)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인간이 영적으로 한번 죽어 나라는 의식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는 영적 부활의 과정과 그대로 대응됩니다.

해서 상징으로서의 벌레는 인두껍을 벗고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는 영적 여정을 제 몸 안에 함축적으로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自然)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러한 벌레의 변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간도 화려한 나비처럼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러니 거듭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석가의 꿈에 등장하는 벌레 또한 각성하고 있는 자성(自性), 하나님의 신의 상징입니다. 더욱이 흰 벌레라면 회개 이루어진 의인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석가모니의 몸을 기어오르는 흰 벌레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들의 미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레의 머리가 검은색입니다. 여기엔 꽤 커다란 반전이 숨어있습니다.

머리는 주체의식, 주체영 자리를 의미합니다. 머리가 검은다는 것은 아직 나라는 의식, 주체영 자리를 마귀 신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고 있는 석가모니의 제자들이지만 주체영의 온전한 교체까지는 이루지 못한 채 머물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시대에는 나라는 의식, 나라는 주체의식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3000여년이 지난 후에야, 7번째 인(印)을 때의 자가 나와야 비로소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열반경을 통해 석가모니 스스로 ‘나는 반쪽글자를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였던 것입니다.

이긴자께서 밝혀주신 바, 나라는 의식이 마귀임을 여실히 깨닫고 나를 온전히 죽여 버릴 때, 나를 대신해서 이기신 하나님이나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대신해 줄 때, 그때 비로소 검은 머리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주체의식이 그 머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제야 검은 머리의 벌레도 온전히 회개 변할 테지요.

머리까지 온전히 회개 이루어진 벌레가 바로 이긴자와 함께 회개 이루어져 가는 소사(素砂)의 흰 모래, 흰 돌들이 된 것입니다.

꿈의 경(經) 4

“다시 비구들이여, 여래·아라한·정등각이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꿈에서) 각기 다른 색깔의 새 네 마리가 사방에서 와서 땅에 내려앉더니 모두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여래께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꾸었던 네 번째 큰 꿈이다.”

해석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생명체입니다. 즉, 영적 날개를 달고 마귀의 중력을 이겨내어 하늘을 나는 영적 자유를 쟁취한 하나님의 신을 상징합니다.

해서 우리민족의 태양신의 상징인 삼족오(三足鳥)를 위시(爲始)로 매의 머리를 한 이집트의 호루스 신, 아메리카 원주민의 신의 사자(使者) 독수리 등 동서고금의 신화나 종교에서 새는 신성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방에서 날아온 네 색깔의 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장면에서 동

양 문화권에 속한 자리면 수화목금(水火木金)의 오행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행(五行)상 수(水)는 방위로는 북쪽이자 검은 색, 화(火)는 남쪽이며 붉은 색, 목(木)은 동쪽이며 청색, 금(金)은 서쪽이며 백색입니다.

우리는 이긴자를 통해 천지공사의 운행이 수운(水雲), 화운(火雲), 목운(木雲)을 거쳐 마지막으로 금운(金雲)의 도수(度數)로 완성되어 중앙 토(土) 즉, 에덴동산의 회복으로 마무리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석가모니의 이 꿈에서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운행도수가 그대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날아온 새는 파란 새, 남쪽은 붉은 새, 북쪽은 검은 새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온 이 네 색깔의 새들은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천지 운행의 도수(度數)를 주관하는 수운(水雲), 화운(火雲), 목운(木雲), 금운(金雲)의 네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새들이 모두 흰색으로 변해 땅에 내려앉는 장면은 수운, 화운, 목운을 거친 천지공사가 흰색의 금운(金雲)에 의해 완성되어 중앙 토(土) 자리 즉, 에덴동산의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공사의 원리가 석가모니의 꿈에 이토록 온전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긴 합니다만, 석가모니 정도의 영적 거인의 꿈이니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꿈의 경(經) 5

“다시 비구들이여, 여래·아라한·정등각이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꿈에서) 분노로 된 큰 산위에서 걸었는데 분노에 묻지 않은 꿈을 꾸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여래께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꾸었던 다섯 번째 큰 꿈이다.”

이제 그 과정을 뒤집어야 할 때였다. 싱클레어 연구소의 유전학자 Yuancheng Lu는 네 가지 ‘야마나카 인자’ 중 세 가지의 혼합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배아 또는 난능 줄기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재프로그래밍 인간의 성인 피부 세포이며, 신체의 어떤 세포로도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쥐들은 시력의 대부분을 되찾았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다음으로 뇌, 근육, 신장 세포를 다루었고, 그것들을 훨씬 더 젊은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이상 CNN 기사 발췌

과학자들의 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것 같다. 머지않아 늙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영적 상징과 꿈 〈33〉

부제: 석가모니의 꿈과 해석 2

해설

이 꿈의 해석에 앞서 5번째 인(印)을 뎨 목운(木運)의 하나님, 박대선 영모님께서 이긴자를 증거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글자 그대로 참 선하고 아름답다. 너는 애처롭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주마.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바라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마.. 오늘날 똥구덩이 같은, 그걸 다 말은 자의 주인공이여.』

참으로 절절하고도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이긴자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아름다운 존재일까요. 이미 말할 수 없이 정갈하고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으로 똥구덩이에 뛰어들기를, 똥물을 뒤집어쓰기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모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 단 한 명도 없으니 우리 세 시민이라도 다 함께 천국 가자, 했을 때 자신에게 이 인생들을 구제할 기회를 달려뎨 눈물로 애원했던 주님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꿈에 등장한 분노로 된 거대한 산이 무엇인지는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꿈의 거대한 똥산은 태산과도 같은 인간의 자존과 이반과 죄의 산입니다.

꿈에서 석가는 분변에 묻지 않습니다.

죄 담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식들이 싸 놓은 똥 기저귀를 손수 빨아 키워주시는 영적 엄마의 역할을 석가모니는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죄(罪) 담당의 역사는 마지막 때, 이기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서 석가모니는 거대한 똥 산을 걸으면서도 변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자식들의 똥 무더기 같은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느라 실제 매일 피를 토하며 사경을 헤매는 영적 엄마일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석가모니, 그는 정갈하게 이루어진 의인입니다. 해서 더러운 똥오줌을 밟아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청정(淸淨)합니다. 그는 더러워지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오염을 정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석가의 마지막 꿈은 오염되지 않는 청정(淸淨)한 법신(法身)으로 거듭났지만, 똥 무더기 같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영적 엄마가 되지는 못하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인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영적 엄마, 생미륵불입니다. 우리의 도(道)는 그런 도입니다. 제 한 몸 추스르지는 공부가 아니라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그 더러운 죄를 함께 담당하고 해결하며 영적 엄마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金輝 / 의사 kimtaek8@nate.com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Hope of Eternal Life and the Confidence of the Resurrection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

영생을 목적 삼고 영생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게 되는 것이다.

▶If you aim for eternal life and live toward it, joy will naturally spring up.

사람이 소망을 크게 가지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기쁨이 오는 것이다.

▶If a person has great hope, joy will come, no matter how painful the environments may be.

사람이 소망이 크면 감사가 나온다.

▶When a person's hope is great, gratitude comes out.

감사가 나오니까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

▶When gratitude comes, joy follows.

기쁨이 나오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Joy comes from the heart, so you live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Heaven is where you live a happy life.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새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다.

▶But what is surprising is that if you live with the hope of eternal life and the confidence of forever life, your body will change into an immortal body.

사람의 몸의 피가 죽지 않는 하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이다.

▶The blood of the human body is changed to the immortal blood of God.*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노화 되돌리는 실험 성공

노화 연구의 대가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CNN 1월 13일자에 보도되었다.

하버드 의대 블라바트니크 연구소의 유전학 교수이자 폴 F의 공동 책임자인 노화 방지 전문가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노화는 “앞으로 그리고 뒤로 마음대로” 추진될 수 있는 가역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의 보스턴 실험실에서, 늙고 눈이 먼 쥐들은 시력을 되찾았고, 더 튼튼하고 젊은 뇌를 발달시켰고, 더 건강한 근육과 신장 조직을 만들었다. 반면에, 어린 쥐들은 그들의 몸의 거의 모든 조직에 파괴적인 결과와 함께 조기 노화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노화가 진행되게 하거나 역행하는 과정임을 증명하는 실험인 것이다.

노화학자들에 따르면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산화스트레스, 염증, 그리고 인슐린 내성이 그것이다. 이것 말고도 DNA를 손상시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데이비드 교수의 실험은 이러한 과학적 믿음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몸에는 재생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젊음의 백업본이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켤 수 있다면 나이가 들었건 아니건, 질병에 걸렸건 아니건 젊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까지 노화의 원인이라고 주장되었던 모든 원인들이 선행하는 근본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손상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래의 DNA를 읽는 세포의 능력의 손실인 정보의 손실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노화의 정보 이론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DNA는 신체의 하드웨어로 볼 수 있지만

후생유전자는 소프트웨어이다. 후생유전자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켜고 끈다. 그 과정은 오염, 환경 독소, 흡연, 염증성 식단 섭취 또는 만성 수면 부족과 같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DNA가 부서지거나 손상됨에 따라 세포 과정이 손상된다고 싱클레어는 말했다. 그는 “놀라운 발견은 초기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백업 복사본이 몸에 있으며, 그것을 다시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원생 때부터 그 스위치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효모에게서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존재를 발견한 그는 그 유전자가 모든 생물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그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돌연변이나 암을 유발하지 않

고 쥐의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다른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싱클레어와 그의 하버드 팀은 쥐의 뇌, 눈, 근육, 피부, 신장의 조직을 노화시킬 수 있었다.

이제 그 과정을 뒤집어야 할 때였다. 싱클레어 연구소의 유전학자 Yuancheng Lu는 네 가지 ‘야마나카 인자’ 중 세 가지의 혼합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배아 또는 난능 줄기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재프로그래밍 인간의 성인 피부 세포이며, 신체의 어떤 세포로도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쥐들은 시력의 대부분을 되찾았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다음으로 뇌, 근육, 신장 세포를 다루었고, 그것들을 훨씬 더 젊은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이상 CNN 기사 발췌

과학자들의 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것 같다. 머지않아 늙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